



충주시
범죄예방환경설계(CPTED)
가이드라인



目 次

I. 총 칙

1. 목 적	3
2. 적용대상	3
3. 적용범위	3
4. 용어의 정의	4

II.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

1.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	5
2. 자연감시를 위한 설계기준	5
3.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	6
4.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	7
5.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	8
6.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	8

III. 아파트단지 설계기준

1. 단지외부 공간	8
1.1 단지 출입구	8
1.2. 공원 및 녹지	9
2. 부대시설	9
2.1. 주차장	9
2.2. 경비실(관리사무소)	10
2.3. 담장	11
2.4. 옥외배관	11
2.5. 승강기	11

3. 복리시설	12
3.1. 어린이 놀이터	12
3.2. 유치원(보육시설)	12
3.3 주민운동시설	13
4. 주 동	13
4.1. 주동출입구	13
4.2. 복도·계단	14
4.3. 세대 내부	14
5. 기 타	15
5.1. 자전거 보관소	15
5.2. 분리수거장	15

IV. 단독, 다가구,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 설계기준

1. 주택주변	16
2. 출입구 및 창문	16
3. 옥외배관	17
4. 조 명	17
5. 담 장	17
6. 골목길	18
7. 주차장	18

충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(CPTED) 가이드라인

I. 총 칙

1. 목 적

이 가이드라인은 시민이 편안하고 폐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대상

2.1. 아파트단지

- ① 신축 아파트단지
- ② 재개발, 재건축 아파트단지
- ③ 리모델링단지

2.2. 단독, 다가구,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

- ① 단독, 다가구,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
- ② 단독, 다가구, 다세대주택 등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
- ③ 가로 및 주차장, 공원 및 녹지,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정비하는 경우

3. 적용범위

이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구도심지역의 낙후 주거 지역 계획 및 설계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. 적용지역의 범위는 주거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며, 주거지역 내의 가로 및 주차공간, 공원 및 녹지,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개공지(오픈스페이스)를 포함한다.

3.1.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주거단지 또는 신규 주거단지 계획시 범죄 예방 환경설계 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.

3.2.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주거형식의 유형, 빈발범죄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충주시의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3.3. 이 가이드라인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한다.

4. 용어의 정의

- 4.1. “범죄예방환경설계”란 주거 및 도시공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적 공간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,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.
- 4.2. “자연감시”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설계개념으로 도로, 주차장, 놀이터 등의 공적공간에 대해 시각적 노출을 최대화시켜 주민에 의한 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물 및 시설을 배치하는 방어적 공간 설계를 의미한다.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.
- 4.3. “접근통제”는 사람들의 출입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범죄기회를 줄일 목적으로 하는 설계개념이다. 이를 위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입·출구, 울타리, 조경,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을 말한다.
- 4.4. “영역성”은 잠재적인 범죄인에게 영역감을 인식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으로, 조경, 담장, 표지, 바닥의 재질 및 색상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.
- 4.5. “활동의 활성화”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개념으로 일정 지역에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시설, 공원 및 휴게시설, 상가 등을 계획해 주어 주민간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.

- 4.6. “명료성 강화”는 주민이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을 말한다.
- 4.7. “유지관리”는 시설물 또는 구조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같이 깨끗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으로, 주민이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지속되도록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.

II.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

1.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

- 1.1. 해당 지역 및 특정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예측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,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공간계획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.
- 1.2. 해당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평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2. 자연감시를 위한 설계기준

- 2.1. 건물의 현관이나 주차공간의 경우 주변에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, 충분한 조명과 방범시설을 계획한다.
- 2.2. 건물 출입구, 승강기 흘, 계단 흘, 외부와 면한 창문 및 계단 등은 개방형 구조로 디자인한다.
- 2.3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격 공간 등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.
- 2.4. 보행로는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.

- 2.5. 야간에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명은 적절한 조도와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. 특히, 주택가 골목, 주차장, 공원, 놀이터 등 공공 장소의 조명설계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범죄 유발 요인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.
- 2.6.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.
- 2.7. 주택가 도로 주변에 소매점, 편의점과 같은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한다.
- 2.8. 주택가 막다른 골목은 시점에서 종점이 한눈에 보이도록 가급적 일직선으로 계획한다.
- 2.9. 주거단지의 모든 도로와 골목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.

3.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

- 3.1.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공간의 성격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별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.
- 3.2.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가로 바닥재의 재질, 색채, 포장상태 등을 차별화하고 상징물, 조명 등을 설치하여 시각, 촉각, 청각 등을 통해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3.3. 지역의 특성 및 성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, 색채 · 재료 · 조명계획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미지 강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3.4. 영역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울타리, 각종 표지판, 조경 식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.

- 3.5. 야간에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역성 확보에 유익한 조경 및 조명계획을 한다.
- 3.6. 주택주변 또는 골목의 자투리 공간은 쌈지공원이나 화단 등을 조성하여 영역성을 강화한다.
- 3.7. 건축물의 형태(외관), 재료 및 색채 등을 통일하여 영역성을 확보한다.

4.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

- 4.1. 주택단지 또는 주동의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.
- 4.2.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.
- 4.3. 사적영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울타리나 투시형 담장, 수목 등의 조경시설을 계획한다.
- 4.4.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과 침입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상징물 및 시설을 계획한다.
- 4.5. 건물의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게 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.
- 4.6. 건축물의 외벽에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방범시설과 함께 설치한다.
- 4.7. 외부와 면한 문이나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하여 침입 시도시 일정시간 버틸 수 있도록 한다.
- 4.8. 주택과 주택사이에 형성되는 이격공간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.

5.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

- 5.1. 사람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과 각종 시설(부대시설 및 복리시설, 균린생활시설)을 디자인하고 시설물과 각각의 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5.2. 이용자들의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.
- 5.3. 골목길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유도한다.

6.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

- 6.1. 공공공간 또는 공공시설물이 최초 계획된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손쉬운 디자인을 한다.
- 6.2. 유지관리의 미흡과 소홀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계획한다.
- 6.3.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파손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계획한다.

III. 아파트단지 설계기준

1. 단지외부 공간

1.1. 단지 출입구

- ① 주출입구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.
- ② 주출입구의 조명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.
- ③ 출입구와 연결되는 차도와 보도의 조명은 충분히 밝게 설치한다.
- ④ 주출입구의 위치는 단지에 접한 도로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연감시가 쉽고 이용자의 편리성이 뛰어난 곳으로 선정한다.



<영역의 위계가 명확한 출입구 설계>

1.2. 공원 및 녹지

- ①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한다.
- ② 수목의 식재로 인해 외벽에 면한 창문을 가리거나,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한다.
- ③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식재하여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.



<보행로 시야확보를 고려한 식재>



<주동주변 가시성 확보를 위한 조경>



<저층세대 프라이버시 확보계획>

2. 부대시설

2.1. 주 차장

- ① 주차장은 접근통제시설(경비실, 차단기)이나 보안설비(CCTV, 비상벨 등)를 설치하도록 한다.
- ② 방문자 차량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 주차장을 구별하여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③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셀프,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.
- ④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

계획한다.

- ⑤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진입차로와 주차구획을 모두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
- ⑥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며,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- ⑦ 지하주차장의 경우 출입구 인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.
- ⑧ 지하주차장 조명은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, 눈부심 방지 (glare-free) 조명을 계획한다.
- ⑨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위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경수 식재를 지양하고, 보행로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한다.



<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시야확보 계획>



<씬큰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계획>



<지하주차장 조명 계획>



<CCTV 계획>



<지하주차장 비상벨 계획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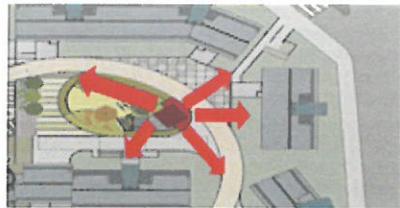
<지하주차장 동선 계획>

2.2. 경비실(관리사무소)

- ① 경비실은 단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, 외부인의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
- ② 경비실은 필요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,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.
- ③ 경비실에 통합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.



<3면 이상 조망 및 시야확보 계획>



<단지 전체가 조망 가능한 배치계획>



<24시간 통합 방범모니터링 시스템>

2.3. 담장

- ① 주민에 의한 감시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며, 시각적으로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.
- ② 주민에 의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담장 또는 키작은 관목 등의 조경수로 계획한다.
- ③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가 낮은 밀생 수종 또는 사계절 수종을 조밀하게 식재한다.
- ④ 적절한 간격으로 조명을 설치하고 조도는 충분히 밝게 계획한다.



<투시형 담장 계획>



<투시형 울타리 계획>



<적절한 조명 간격 계획>

2.4. 옥외배관

- ① 건물 외벽에 설비시설(가스배관 등)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외부인이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계획한다.
- ② 건물외부의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, 도로변,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에 의한 자연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


<옥외배관 계획>

2.5. 승강기

- ① 주동 현관 입구에서 승강기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한다.
- ② 피난 승강기 이외 승강기는 내부가 보이는 승강기를 권장한다.
- ③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한다.
- ④ 승강기 홀과 승강기 홀과 접한 복도, 계단실은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


<승강기 투시형 출입문 계획>



<승강기 내부 CCTV 설치>



<주동현관입구에서 승강기가 보이도록 계획>

3. 복리시설

3.1. 어린이 놀이터

- ①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, 주동 출입구 주변,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주민에 의한 보호와 감시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.
- ② 어린이 놀이터에 울타리 설치 시 투시형 담장 또는 키 작은 관목류를 사용하여 자연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


<어린이 놀이터 배치계획>



<어린이 놀이터 식재계획>



<어린이 놀이터 조명계획>

3.2. 유치원(보육시설)

- ① 단지 내 유치원(보육시설 포함)의 출입구는 외부로부터 감시 가능하도록 계획한다.
- ② 단지 내 유치원(보육시설 포함)은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계획한다.
- ③ 시야확보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.
- ④ 유치원에 부속된 놀이터의 경우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낮은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다.



<유치원(보육시설) 계획>

3.3 주민운동시설

- ① 운동시설은 단지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며,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.
- ② 주민운동 및 휴게공간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범죄행동을 가리거나 시야차단이 되지 않도록 낮은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다.



<주민운동시설 계획>

4. 주 동

4.1. 주동출입구

- ① 주동 출입구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시키는 계획을 한다.
- ② 각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조망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③ 주동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.
- ④ 주동 출입구로 향하는 보행로 부분에는 사각지대(건물, 조경, 시설물 등에 의한)가 없도록 하며, 외진 공간을 거쳐서 진입하지 않도록 계획한다.



<주동 입구 계획>

4.2. 복도·계단

- ① 각 층 계단실, 복도에 CCTV 설치를 고려한다.
- ② 계단실은 외부 공간 및 마주보는 세대에서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외부로 면한 창호를 설치한다.
- ③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에 안전, 피난, 경고 안내판, 비상벨을 설치한다.
- ④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를 굴곡 없이 직선으로 계획한다.



<계단실 계획>

<복도계획 주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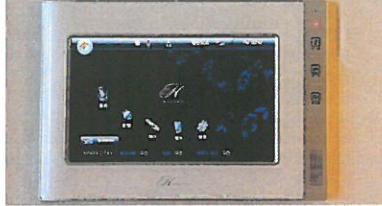
<복도계획 야간>

4.3. 세대 내부

- ① 세대 현관문(경첩, 문, 잠금장치)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

설치하고, 신문·우유투입구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.

- ② 세대 내의 외부로 면한 창문은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 설치하고,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- ③ 외벽, 특히 저층부의 외벽은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(가스배관, 창 등)의 설계 시 방어적 설계 개념을 도입한다.



<세대 내 유비쿼터스 시스템>



<세대 내 비상상황 모니터링>



<저층세대 방범센서 설치>

5. 기타

5.1. 자전거 보관소

- ① 자전거 보관대는 주동 주출입구 주변에 설치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와 보호아래 있게 한다.
- ② 지하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 부근에 투시형으로 하여 주민에 의한 보호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.
- ③ 조명시설을 통해 야간에도 자연적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


<자전거 보관소 계획>



<지하 주차장 내 자전거 보관소 계획>

5.2. 분리수거장

- ① 분리수거장은 주동 주출입구 주변 및 시선의 방해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.
- ② 분리수거장은 투시형 또는 키작은 관목으로 계획하여 주민들의

통행로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
- ③ 분리수거장의 형태 및 재료는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한다.



<자연감시가 가능한 배치계획>



<자연감시가 가능한 투시형 계획>



<유지관리가 원활한 운영계획>

IV. 단독, 다가구,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 설계기준

1. 주택주변

- 1-1.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.
- 1-2. 주택주변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공원이나 화단 등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1-3. 주택주변은 야간에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는 보안등을 설치한다.
- 1-4. 주택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.
- 1-5. 빈집이나 폐가는 주민휴게공간이나 감시초소 등으로 정비하여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한다.



<바닥 디자인을 통한 영역의 위계>



<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한평공원>



2. 출입구 및 창문

- 2-1. 대문·현관 등 건물의 출입구는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계획을 한다.
- 2-2. 주거침입 범죄의 주경로가 되는 출입문, 외부로 면한 창 등은 일정 수준의 방범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,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- 2-3. 외기에 면한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는다.
- 2-4. 골목길에 면한 외벽창문은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하고,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타고 오르거나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범시설을 설치한다.

3. 옥외 배관 등

- 3-1. 주택 외벽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,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.
- 3-2. 전기·가스·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.
- 3-3. 주택에 부속된 창고·차고는 발코니·창문 등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안전하도록 계획한다.

4. 조명

- 4-1. 주택가 골목 등의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는 보안등을 설치한다.
- 4-2.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키가 낮은 유도등의 설치를 권장한다.
- 4-3. 가로등의 경우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.

4-4. 출입구 및 창문 등 범죄자의 침입이 가능한 곳에 부분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사람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.

5. 담장

5-1.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, 필요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한다.

5-2. 담장이나 벽면 등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적 특징을 고려한 밝은 분위기의 도색을 권장한다.

6. 골목길

6-1. 골목길에는 보행자를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.

6-2. 골목길은 보행자에게 충분한 전방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하며, 고립된 공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급적 직선으로 계획한다.

6-3. 방범용 CCTV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며, 시민이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.

6-4. 골목길 내의 전봇대나 담장, 출입문 주변에는 위치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6-5. 골목길 내의 자투리 공간 등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또는 주민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활성화를 유도한다.



<골목 시야 확보>



<보차 분리 계획>



<친근한 색채 계획>

7. 주차장

7-1. 주택가의 주차장은 주민에 의한 자연감시가 이루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.

- 7-2. 바닥의 재질과 디자인을 달리하여 공간의 영역성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계획한다.
- 7-3.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계획을 통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